『종교학연구』 제39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21, pp. 25-51.

필사본 『徵秘寶藏』의 내용 검토와 쟁점 분석

: 정감록 비결문헌의 이본비교를 중심으로

한 수 빈*

目 次

Ⅰ. 서론
Ⅱ 『徵秘寶藏』의 서사 유형의 분류
1. 구산론형
2. 경험방형
3. 남사고비결형
4. 순자결형
Ⅲ. 『徵秘寶藏』과 『徵秘錄』의 비교
1. 충청권 및 충주에 대한 강조
2. 주석으로 보이는 내용의 존재
Ⅳ. 『徵秘寶藏』의 쟁점 검토
1. 지명과 간기의 문제
2. "宦官主之 孀妣與焉"에 대한 검토
3. "白首君王"에 대한 이해
4. "道光隆熙"의 해석 문제
Ⅴ. 결론

I. 서론

최근 정감록(鄭鑑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1] 이 과정에서, 이전 연구에서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주로 활용되던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출판본 『정감록(鄭鑑錄)』(이하 호소이본)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결문헌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 연구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비결집록(秘訣輯錄)』에 수록된 「삼한산림비기」에 대한 연구나, 필사본 정감록의 한 종류인 『정감록고핵(鄭鑑錄考覈)』을 다루는 연구,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가 출판한 『진본정감록(眞本鄭堪錄)』(이하 야나기타본)에 대한 연구[2] 등이 그렇다. 다만,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필사본을 중심으로 다루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그러나 필사본은 출판본과는 달리 정확한 작성 시기를 알기는 어려우나, 출판본에 등장하는 비결들의 원형을 짐작하는 것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 충분한 연구 가치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정감록 비결문헌의 하나인 필사본 『징비보장(徵秘寶藏)』(한古朝19-11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하 '징비보장')을 다루고자 한다.

징비보장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필사본이며,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다른 곳에 동일 제목의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도서의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볼 때, 책은 1944년 10월 마츠모토 키이치(松本貴一)에 의해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납입되었다. 당시 본 도서는 다른 25권의 책들과 함께 "다비작법(茶毗作法)"이라는 이름으로 납입되었는데, 도서의 소장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다비작법의 책들 속에 비결문헌 한 편을 포함하여 납입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징비보장은 본문 29쪽에다 책의 간기가 실린 마지막 쪽이 더해져 총 30쪽이다. 징비보장은 김용주가 출판한 『정감록(鄭鑑錄)』(이하 김용주본)에 수록된 『징비록(徵秘錄)』[3](이하 징비록)과 높은 일치도를 보인

1) 정감록이란 조선 후기 이래로 유통된 특정 종류의 필사본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20세기 초에 간행된 서적들에 수집된 일련의 비결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표현으로, 여기서 연구가 활발하다는 정감록은 후자를 가리킨다.

2) 장지연, 「규장각 소장 『秘訣輯錄』(奎 7568) 수록 「三韓山林秘記」 분석」, 『인문과학논문집』 50 (2013): 131-148; 남혜원, 「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의 『정감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 최종성,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 본 『진본 정감록(眞本鄭堪錄)』의 검토」, 『아시아종교연구원 학술회의』 (2021 후반기): 91-105.

3) 김용주본의 정감록은 7종의 비결문헌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 3종의 비결문헌은 세부 비결 편을 싣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징비록과 같은 경우를 "『』"로 표시했으며, 그 비결 속에 수록된 하위 분류의 비결에 대해 "「」"로 표시했다.

다. 둘은 제목부터 징비보장의 徵이 이체자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하며, 내용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일치를 보인다.

아직 징비보장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비록 다룬다 하더라도 비결들의 간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징비보장을 살피거나,[4] 혹은 다른 비결문헌과의 비교를 위해 내용의 일부를 거론하는 것에 그쳤다. 본 논문은 징비보장의 본문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징비보장의 요체를 파악하기 위해 본문 서사를 분류하고(2장), 유사본인 징비록과의 비교를 통해 징비보장의 특성을 간추린 뒤(3장), 비결 전승을 이해하는 데 있어 쟁점이 될 만한 주요 구절들을 검토할 것이다(4장).

Ⅱ.『徵秘寶藏』의 서사 유형의 분류

징비보장의 서사는 대체로 여러 유형의 예언 서사가 차례대로 전개되지만, 중간에 다른 유형의 예언 서사가 삽입되기도 했다. 내용의 순서대로 서사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완산백의 두 아들 심, 연이 촉나라 사람 정렴[5]과 함께 금강산에서 고려와 그 후의 국가들에 대해 말하다.

② 일행의 편목[6]과 고조선 시대의 일에 대해 말하다.

---

4) 한승훈,「전근대 한국의 메시아니즘」,『종교와 문화』27 (2014): 36.

5)『徵秘寶藏』1. “沁淵與蜀人鄭礁 同遊八道.” 대부분의 비결문헌에서는 이름이 정감으로 나오지만 여기선 정렴으로 쓰였다. 또한 촉나라 사람이라고 쓰여 있으나 조선 전기의 문인이자 북창비결 등을 남긴 북창 정렴의 이름을 가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필자를 정렴으로 가탁한 비결의 다른 예시로는 김용주본에 수록된『鑑寅錄』의「鄭北窓秘訣」등이 있다.

6)『徵秘寶藏』2. “鄭曰 吾觀一行編目.” 일행은 도선의 스승인 당나라의 승려 일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편목의 실존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승훈,「開闢과 改闢 : 조선후기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의 18세기적 기원」,『종교와 문화』34 (2018): 234.

③ 고려, 조선, 조선 이후의 망국 시기와 그 징후를 말하다.

④ 십승지(a)[7]에 대해 말하고, 십승지에 들어갈 때의 상황에 대해 말하다.

⑤ 400년 후[8]의 재앙(b) 등에 대해 말하다.

⑥ 간지(c)를 통해 그때의 길흉에 대해 말하다.

⑦ 십승지(a')와 그 밖의 피난처들에 대해 말하다.

⑧ 경험방을 통해 십이지별로 당해의 농사, 재앙 등을 말하다.

⑨ 간지(c')를 통해 그때의 길흉에 대해 말하다.

⑩ 왕과 스승이 순(順)자와 풍수지리를 통해 국운을 말하다.

⑪ 예언과 산악을 통해 미래를 말하다.

⑫ 400년 후의 재앙(b') 등을 말하고 선생의 말을 전하다.

위의 서사 분류는 글의 내용 전개가 바뀌는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아 나눈 것이다. 이 서사들을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야나기타본 정감록(鄭堪錄)형 서사	①, ③, ④, ⑤, ⑥, ⑦
(2) 구산론(求山論)형 서사	②
(3) 경험방(經驗方)형 서사	⑧
(4)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형 서사	⑨
(5) 순자결(順字訣)형 서사	⑩, ⑪, ⑫

표 1『징비보장』의 내용 분류

(1)의 야나기타본 정감록은 야나기타본에 수록된 비결, 「정감록(鄭堪錄)」을 의

7) 십승지(a)와 (a')는 각각 다른 목록을 싣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목록을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두 종류의 십승지를 수록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최종성,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 본『진본 정감록(眞本鄭堪錄)』의 검토」, 102.

8) 400년 후의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400년 후를 망국의 때로 잡은 뒤, 망국의 시기에 나타날 재앙들을 서술하는 것이다. 정감록에 속하는 비결들은 조선의 망국 시기를 개국 이후 300년, 400년, 500년 후로 잡는 다양한 판본들이 존재하는데, ⑤와 ⑫의 400년 후의 재앙(a)와 (b)를 고려하면 징비보장은 대체로 400년 위기설을 바탕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최종성, 「정감록 백년왕국론과 조선후기 위기설」,『역사민속학』61 (2021): 19.

미한다. 징비보장은 다른 비결문헌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2), (3), (4), (5)를 제외한 (1)의 내용이 글의 약 2/3를 차지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징비보장의 초기 내용은 야나기타본 정감록과 동일한 저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을 수 있다.

(2)의 구산론은 한승훈의 명명법을 따른 것이다. 한승훈은 정씨와 이씨의 대화로 내용이 전개되는 정감록을 세 종류(유산론계, 구산론계, 혼합형)로 구분했다.[9] 먼저 유산론계는 이씨 형제(심, 연)와 정씨(감)가 금강산으로부터 가야산에 이르는 국내 산천을 유람하며 왕조의 국운과 교체 등을 논하는 서사다. 둘째 구산론계는 이씨(심)와 정씨(감)가 중국으로부터 선조(연)의 천장처(遷葬處)로 지목된 명당지인 향린산(동)을 찾아오며 우주의 순환과 왕조의 성쇠를 언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의 혼합형은 두 종류의 서사가 섞여 있는 것으로, 징비보장도 여기에 속한다. 주로 유산론계의 내용을 다루는 중 구산론계에 속하는 (2)의 내용이 첨가되었다.

(3)의 경험방형 서사는 다른 비결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서사로, 경험방을 통해 자년(子年)부터 해년(亥年)까지의 작황 등을 서술했다. 이처럼 경험방에 의거해서 서사를 전개하는 비결의 존재 여부 등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의 남사고비결형 서사는 흔히 20세기의 출판본들에서는 남경암산수십승보길지지(南敬菴山水十勝保吉之地, 이하 남경암)[10] 등과 함께 등장하곤 한다. 징비보장도 십승지(a')에서 남경암류의 십승지와 피장처를 제시한 후, 간지별로 나타날 재앙을 예언했다.

(5)의 순자결형 서사는 다른 필사본 비결인『異本鄭鑑錄』의「順字訣成士謙道號無學國師」등에서 나타나는 비결문헌으로, 비결의 이름은 무학결, 무학순자결 등의 여러 종류가 있으나 모두 順자를 통해 내용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순자결형

9) 한승훈,「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131-132.

10) 남사고의 호인 격암(格庵)이 변형된 것으로, 김용주본의「남격암십승지론(南格庵十勝地論)」같은 경우에는 격암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남경암산수십승보길지지 같은 경우에는 경암으로 수록되어 있다.

서사로 구분했다.

그 밖에 전체적인 서사의 흐름에 있어 징비보장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김용주본 『운기귀책(運寄龜策)』도 있다.[11] 따라서 운기귀책형 서사 분류도 가능하겠으나 운기귀책의 서사 자체가 지나치게 혼재된 상태로 전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칫 분류상 혼돈을 줄 수 있기에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징비보장의 서사는 야나기타본 정감록 서사를 중심 구조로 공유하면서 여타의 비결형 서사들을 덧붙이고 있는 흐름을 보인다. 아래에서는 기본 구조에 추가된 비결 서사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구산론형

징비보장은 야나기타본 정감록형 서사를 따라 정렴과 심, 연의 금강산 유람으로 내용을 시작하는데, 각 왕조의 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기 전, 구산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한다.

> 심이 말하기를, … "그 후에, 신인이 태백산에서 강림하여, 스스로 왕이 되는 동안 주나라의 왕실에서 기자를 후작으로 복원시켰다. 청룡(갑진년)의 때에 무덤을 향린산의 육육봉으로 옮겼다고 한다."[12]

위의 인용 내용만으로는 향린산의 육육봉으로 옮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축자적으로 보자면 기자의 무덤을 옮긴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산론계 비결문헌인 「정감문답(鄭堪問答)」과 「정이감여론(鄭李堪輿論)」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a. 이씨의 시조는 당나라 천자인데, … "나의 해골은 향린동에 매장하도록 하

---

11) 징비보장과 운기귀책의 비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남혜원, 「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의 『정감록』 연구」, 61.

12) 『徵秘寶藏』 3. "沁曰 … 其後 神人降于太白山 自立爲主以至間 而至於周室 箕子始復侯爵也 建靑龍歲 遷葬于香麟山六々峯 云々."

라.” (정감문답)[13]

b.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씨의 향린산은 왕이 나올 땅이로다.” (정이감여론)[14]

c. 무왕이 기자를 평양에 봉하여 말하길, “조선의 땅은 백두산을 조종으로 한다.” (정감문답)[15]

a는 연[16]에 대한 이야기로, 연이 자신의 뼈를 향린동에 묻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말하는 맥락이며, b는 마찬가지로 향린산이 이씨가 묻힐 땅이며, 여기서 왕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다. c는 기자에 대한 이야기로, 정감문답에서 나오며 정이감여론에는 나오지 않는다. 기자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향린산(동)의 이야기와 별개의 서사로, 구산론계의 일부 비결에 들어 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징비보장은 이러한 구산론계의 이야기가 축약·삽입되는 변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무덤의 주체를 시사하는 구절이 생략되는 바람에, 마치 기자의 무덤이 향린산으로 옮겨진 것처럼 기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경험방형

징비보장은 십승지(a’)와 피장처에 대해 이야기한 후, 뒤에 경험방형 서사를 추가했다. 경험방이란 일반적으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약이나 침술적 처방을 적은 글로, 조선 후기의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 등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경험의 체득이 아닌, 예언의 한 종류로서, 자년부터 해년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농사 작황, 기상, 재앙 등을 다루는데, 그 출전이 분명하지 않

13) 김용주,『鄭鑑錄』,『鑑寅錄』,「鄭堪問答」,『鄭鑑錄集成』, 안춘근 엮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1), 635. “李氏始祖唐天子也 … 葬我骸骨於香麟洞矣.”

14) 김용주,『鑑寅錄』,「鄭李堪輿論」, 620. “時人有言曰 李氏香麟山 乃興王之地.”

15) 김용주,「鄭堪問答」, 637. “武王封箕子于平壤曰 朝鮮之地 祖宗於白頭山.”

16) 연(淵)은 유산론계 비결문헌에서는 심과 형제로 나오지만 구산론계 비결문헌에서는 심의 선조로 나오는 인물이다.

다. 다만 경험방 서사에서 농사에 대한 경험을 내포한 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가령, 십승지에서 어떤 농사를 지으며, 무엇을 먹을지를 다루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자년에는 논밭의 삼과 실이 중등, 순무가 하등이다. 눈과 비가 많이 내려 사람들이 많이 죽으며, 바람과 비가 많고 날벌레가 벼를 상하게 해서 곡식을 반만 거둔다. 먼저는 가물고 뒤에는 홍수이며, 오월에는 도적이 일어난다.[17]

> 만약 골짜기 가까이에 산다면, 밭벼와 콩, 팥이다(밭벼와 콩, 팥을 심어야 한다).[18]

이처럼 작황, 기상, 재앙 등을 십이지별로 설명하고, 이어 특정 지역에서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식의 서사를 띄고 있는데, 이는 다른 비결문헌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내용이다. 일반적인 비결문헌들은 흉년, 풍년을 말하더라도 특정 곡식의 상, 중, 하를 구분하여 서술하지는 않으며, 어디서 어떤 농사를 짓고, 무엇을 먹을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도 않는다.

징비보장의 필사자는 경험방형 텍스트를 독립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험방형 서사가 시작되는 지점에 "◯"를 표시하여 문단을 구분하였는데, 이는 경험방의 내용이 전후의 텍스트와 분명히 구분되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경험방형 서사가 다른 비결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징비보장에서도 다른 비결 서사와 구분되어서 서술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경험방형 서사는 징비보장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내용이다. 현재로서는 징비보장이 경험방형 서사를 담고 있는 유일본이지만, 차후 경험방형 서사를 담고 있는 비결문헌이 확인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3. 남사고비결형

17) 『徵秘寶藏』 20. "子年 田沓麻絲中菁下 雪水多人多死 風雨多飛虫損禾穀半收 先旱後水 五月賊人起."

18) 『徵秘寶藏』 22. "若居近峽 則山稻與豆太."

징비보장은 경험방형 서사를 다룬 후, 간지별로 당해년의 재앙을 묘사한다. 이처럼 간지의 순서에 따라 재앙을 순차적으로 묘사하는 서사는 남사고비결형에 속한다. 물론 간지별로 예언을 다루는 서사는 남사고비결형 외에도 존재하나, 간지의 예언이 간헐적으로 묘사될 뿐이고 내용 역시 차이를 보인다. 징비보장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남사고비결형의 서사뿐만 아니라 다른 류의 서사도 위치를 달리해서 등장한다. 대개 야나기타본 정감록형 서사에 분포하며, 경험방형 서사 뒤에 등장하는 것이 남사고비결형 서사다.

특정 간지에 해악이 생긴다는 내용을 담은 예언은 징비보장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남사고비결형 서사처럼 간지를 순차적으로 배열하며 재앙 등을 서술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서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흰 호랑이(경인년)에는 금색 개가 토끼를 떨어트리고, 옥첩에 먼저 티끌이 묻으며, 백의가 청색이 되며, 이화가 빛을 잃는다. 흰 토끼(신묘년)에는 장성한 임금이 돌아와서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물고기와 소금이 역적이 되고(비싸지고), 호랑이가 사람들을 해친다. 푸른 쥐(갑자년)에는 분수의 추풍곡과 … [19]

여기서 신묘년 이후 갑자년이 나와서 간지가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후술하겠다. 갑자년이 나온 이후로도, 다시 붉은 원숭이(병신년), 붉은 닭(정유년) 등이 순서대로 등장하여 푸른 토끼(을묘년)까지 이어져 남사고비결형 서사가 나타났다.

4. 순자결형

징비보장은 남사고비결형 서사 이후 마지막 부분에 왕과 스승의 대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순자결형 서사를 다룬다. 순자결형 서사는 중심 서사인 야나기타본 정감록형 서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분량인 5쪽 이상을 차지하는데, 중심 서사에서 대화의 주체였던 심, 연, 정렴이 사라지고, 왕과 스승이 順자를 중심

19)『徵秘寶藏』22. “白馀金狗墮卯 玉牒先塵 白衣到靑 李花無光.”

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 순자결형 서사는 작성 시기로 가탁하는 때가 명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는 글의 첫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갑술년 삼월 주상이 창경궁에 가, 어주를 권하며 국사에게 명을 이을 방법을 물었다.[20]

대화의 시기가 갑술년 삼월이며, 판본에 따라서는 대화의 주체가 太祖와 無學으로 등장한다.[21] 따라서 이 서사는 1394년에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눈 대화로 설정된다. 이처럼 대담 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비결과 구분된다.

또한 징비보장에서는 순자결형 서사가 시작되기 전 한 차례 줄바꿈을 한다. 다른 종류의 서사가 추가될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줄바꿈이 순자결형 서사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징비보장의 서술자가 별개로 존재하던 순자결형 서사를 징비보장에 그대로 추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여러 필사본이나 출판본 정감록에서도 갑술년 3월의 왕과 스승의 대화라는 순자결형 서사의 틀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22] 이는 아마도 기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던 비결을 그대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제목을 삭제하고 징비보장에 병렬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비결문헌의 마지막 부분에 왕과 스승의 대화식 서사를 추가한 판본이 호소이본에도 보인다. 그것은 호소이 하지메가 1920년~1923년 사이에 수집한 자료 중의 하나로 보인다.[23] 징비보장에 나타나는 대화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상당히

---

20) 『徵秘寶藏』 24. “甲戌三月 上御昌慶宮 以御醞勸國師 問永命之術.”

21)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 『眞本鄭堪錄』, 『諸家秘訣』, 「無學訣」, 11. “甲戌三月太祖 … 國師無學 問永命之術.”

22) 순자결형 서사가 등장하는 비결문헌으로는 다음의 비결들이 있다. 『鄭鑑錄集成』에 수록된 『異本鄭鑑錄』의 「順字訣成士謙道號無學國師」와 『秘覽聽流堂陰晴錄』의 「秘覽」과 김용주본의 『鑑寅錄』; 도쿄대학교 오구라문고의 『明月順字訣』(청구기호 L174699)의 「順字訣」; 버클리대학교 아사미문고의 『諸家秘說』(청구기호 33.5)의 「無學順字論」; 야나기타본의 『諸家秘訣』의 「無學訣」.

23)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鄭鑑錄』, 『擬似稿本』, 「秘訣」, 『鄭鑑錄集成』, 안춘근 엮음 (서울:

유사한 내용도 나타난다. 순자결형 서사를 추가하고 있는 비결 서사와 징비보장의 그것 사이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선 징비보장의 기본 골격은 야나기타본 정감록형 서사를 따른다. 정렴과 심, 연의 대화를 통해 야나기타본 정감록형 서사를 전개하는 중에 구산론형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기도 하고, 서사 전개 후 다른 비결 서사들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추가된 내용은 경험방형, 남사고비결형, 순자결형 서사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혼합되는 것보다는 추가·병렬되는 흐름을 보였다. 추가된 서사 중에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 있어 순자결형 서사가 주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Ⅲ.『徵秘寶藏』과『徵秘錄』의 비교

징비보장과 징비록은 약간의 오, 탈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같은 내용을 공유한다. 두 문헌 모두 야나기타본 정감록과 중심 서사를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비보장과 징비록, 야나기타본 정감록이 공통으로 기반하는 비결전승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의 저본에 여러 서사 유형의 내용이 추가된 것이 징비보장과 징비록일 것이다. 다만 징비보장과 징비록은 내용적 측면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 차이는 충청권, 특히 충주를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로 제시하는 것과, 주석으로 보이는 내용이 본문 상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충청권 및 충주에 대한 강조

징비보장과 징비록은 십승지(a)의 목록과, 십승지(a') 뒤에 서술되는 피장처의

아세아문화사, 1981), 831. "太祖登寶位之日, 國師獻順字."

목록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다음의 표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징비보장의 십승지(a)	징비록의 십승지(a)
①豊基**醴泉**	①豊基
②安東華谷	②安東華谷
③開寧龍宮	③開寧龍宮
④伽倻	④伽倻
⑤丹陽永春	⑤丹陽永春
⑥公州定山**忠州**	⑥公州定山
⑦鎭川木川	⑦鎭川木川
⑧奉化	⑧奉化
⑨**榮川**	⑨豊川
⑩太白	⑩太白

표 2 징비보장과 징비록의 십승지(a) 목록(굵은 글씨는 필자 강조)

a. (은신처를) 모두 기록할 수는 없으나, 충주 서촌의 덕산이 다음이고, 목계가 다음이고, 구성 어비동의 산에 있는 의곡이 다음이며, 대야지가 다음이고, 진천의 만승동 … (징비보장)[24]

b. (은신처로) 의곡이 다음이며, 진천의 만승동 … (징비록)[25]

먼저, 표 2에서 징비보장은 징비록과 비교했을 때 ①에는 예천이 추가되어 있고, ⑥에는 충주가 추가되어 있다. ⑨에는 징비록의 풍천이 영천으로 변경되어 있기도 하다. ①과 ⑨의 지역은 모두 경북지역에서 충청북도와 인접한 지역으로 충청권 인근 지역을 십승지로 제시했다. ⑥의 충주는 정산과는 거리가 있는 충청북도 지역이며, 충주를 십승지로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어 눈에 띈다. 이어서, 표 2의 뒤에 인용한 구절 역시 충청권, 충주에 대한 강조가 존재한다. 충주 서촌

24) 『徵秘寶藏』 20. "忠州用西村德山次之 木溪次之 駒城魚肥洞山用宜谷次之 大野地次之 鎭川用万升洞."

25) 김용주, 『懲秘錄』, 492. "宜谷次之 鎭川用萬升洞."

의 덕산 이후 등장한 목게는 충주의 목계진(木溪津)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의곡이 구성 어비동(현 용인 지역)에 존재함을 밝히며 충청권과 어느 정도 인접한 의곡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충청권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26] 다만, 충주에 대한 서술은 징비록에서도 약간은 존재함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역시 다른 비결문헌과 비교할 때 차이가 존재한다.

c. (대소백 근처) 북쪽으로 충주, 연풍 등이 있으며 모두 (은신처로) 가능하다. (징비보장, 징비록)[27]

d. (대소백 근처) 북쪽의 지역들은 (은신처로) 불가능하다. (남경암)[28]

이를 고려하면, 징비록과 징비보장은 모두 다른 비결문헌에 비해 충청권, 특히 충주를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로 제시한다는 특징이 존재하나, 징비보장이 징비록보다 이를 강하게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2. 주석으로 보이는 내용의 존재

징비보장과 징비록은 모두 주석이 존재하지 않고 본문만이 존재하는데, 징비보장에는 내용상 주석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특징으로 볼 수 있다.

a. (십승지 외의 피장처로) 소백산이 제일이며, 지리가 다음이고, 두류가 다음이고, 온산이 다음이다. (징비보장)[29]

b. (십승지 외의 피장처로) 소백산이 제일이며, 지리가 다음이고, 온산이 다음이다. (징비록)[30]

---

26) 다만 징비보장은 추가로 대야지(大野地)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현재 어느 지역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27)『徵秘寶藏』19. “北在忠延等皆可.”; 김용주,『懲秘錄』, 492. “北在忠延等皆可.”

28) 김용주,『鑑決』,「南敬菴山水十勝保吉之地」, 581. “北在等地不可.”

29)『徵秘寶藏』19. “小白爲上 智異次之 頭流次之 媼山次之.”

30) 김용주,『懲秘錄』, 492. “小白爲上 智異次之 媼山次之.”

c. 만약 골짜기 가까이에 산다면, 밭벼와 콩, 팥이다(밭벼와 콩, 팥을 심어야 한다). 본래 수재, 한재가 없을 때는 밭벼를 심고, 때때로 콩과 팥을 심는다. (밭벼에는) 종종 재를 벼 종자에 섞는 게 가장 좋다. (징비보장)[31]

d. 만약 골짜기 가까이에 산다면, 밭벼와 콩, 팥이다(밭벼와 콩, 팥을 심어야 한다). 종종 재를 벼 종자에 섞는 게 가장 좋다. (징비록)[32]

a와 b를 보면, 징비보장은 징비록에 비해 피장처로 지리산 외에 두류산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리산의 다른 명칭으로 두류산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두류산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리산이 이름을 바꾸며 중복해서 등장한 것인데, 이는 징비보장이 필사한 원문에 "지리산을 혹 두류산으로 부르기도 한다."와 같이 각주로 존재하던 구절을 징비보장의 필자가 잘못 이해하여 지리산과 두류산 각각을 피장처로 서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c와 d를 보면, 이 구절에서 징비보장은 징비록과 비교했을 때 밭벼와 콩, 팥을 심어야 하는 시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시했다. 농사 작물을 소개한 후, 농사 작물을 심을 시기를 추가로 설명하는 이 내용은 주석으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역시 징비보장의 필자가 주석을 그대로 본문으로 처리하여 제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징비보장이 지리산을 중복해서 서술하거나, 적절한 농사 시기를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원래 주석으로 달린 것을 주석으로 존재하던 내용을 징비보장에서 모두 본문으로 서술하며 발생한 차이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 3장은 징비보장과 징비록을 비교하여 내용적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뤘다. 우선 징비보장은 징비록과 비교했을 때, 십승지나 피장처로 충청권, 그중에서도 충주를 자주 제시하며 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충주가 다른 비

31) 『徵秘寶藏』 22. "若居近峽 則山稻與豆太 本無水旱之灾 種山稻時以豆太 灰和於稻種々之最好."

32) 김용주, 『懲秘錄』, 493. "若居近峽 則山稻與豆太 灰和於稻種種之最好."

결문헌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 역시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징비보장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징비보장은 징비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일부 존재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징비보장이 필사한 원문에 주석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징비보장은 이러한 원문을 옮기는 과정에서 주석을 원문으로 그대로 서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Ⅳ.『徵秘寶藏』의 쟁점 분석

1923년에 이르러 정감록의 여러 이본들이 간행되었다. 이전에 필사본 형태로 유포되었던 비결문헌이 드디어 간행본의 품으로 수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거론했던 징비록의 경우에도 그러한 예라 하겠다. 다만 징비록의 유사본인 징비보장의 경우에는 출판계의 손에 닿지 않은 채 필사본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도서관으로 납입된 필사본 징비보장의 실제 필사 시기는 언제일까? 손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워도 쟁점이 될 만한 몇몇 구절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비보장의 필사 시기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징비보장이나 징비록의 내용 검토를 통해 필사 시기를 추정했던 연구가 없지는 않다. 백승종의 지명에 대한 검토나[33] 한승훈의 간기에 대한 검토가[34] 그것이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작성 시기를 추정해 본 적은 없다. 본 연구는 징비보장의 필사 시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몇몇 의논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지명과 간기의 문제

백승종은 정감록에 나오는 지명 중 단양, 영춘에 주목하였는데, 영춘이 단양에

33) 백승종,『한국의 예언문화사』(서울: 푸른역사, 2006), 351.

34) 한승훈,「전근대 한국의 메시아니즘」, 36. 원문은『徵秘寶藏』30. “歲在咸豐八年戊午臘月初九日丹寡寫.”

포함된 시기가 1913년임을 내세우며, 그것이 일제강점기에 등장한 지명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타당하다면 필사 시기는 조선시대가 아닌 일제강점기로 늦춰질 수 있다. 다만, 이 주장은 丹陽 永春, 혹은 그 약칭인 丹永 등의 표기가 단양에 속하는 영춘임을 입증할 수 있을 때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단영(丹永)의 경우 정감록에 등장하는 진목(鎭木=鎭川·木川)과 같이 인근 지역을 축약하여 병렬적으로 표기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영은 단양의 영춘이 아니라 단양과 영춘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그것을 굳이 20세기의 지명 표기라고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한승훈은 간기가 포함된 가장 오래된 도참비기로서 징비보장을 거론하였고, 그것의 근거로 함풍 8년 무오년 납월에 전사된 점을 주목했다. 이 얘기라면 적어도 현존하는 도참비기 중 19세기 중엽 이전에 작성된 것이 없다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간기의 사실성 여부가 제대로 검토되어야만 하지만, 아직 그런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宦官主之 孀妣與焉”에 대한 검토

남사고비결이나 운귀기책과 같은 비결문헌에는 을미년에 궁중의 일을 환관이 처리한다는 유형의 구절이 나오는데, 황선명은 이를 을미사변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해서 강하게 시대성을 띄는 예언으로 이해했다.[35] 징비보장이나 징비록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검토할 가치가 하다.

> a. 푸른 쥐(갑자년)에는 분수의 추풍곡과 우산의 지는 해가 있고, 궁중의 일을 환관이 주가 되고 과부인 어머니가 함께하니 삼경 촛불 아래에 옥새가 오고 간다. (징비보장)[36]

> b. 푸른 마부(갑오년)에는 분수의 추풍곡과 우산의 지는 해가 있고, 검은 용(임

35) 황선명, 「십승지 고(考)」『종교와 문화』5 (1999): 160.

36) 『徵秘寶藏』22-23. “靑鼠 汾水秋風 牛山落照 宮中之事 宦官主之 孀妣與焉 三更燭下 玉璽來往.”

진년)에는 팔천 골에서 사람들이 가을 산에서 우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검은 뱀(계사년)에는 하늘에서 큰 눈이 가득 내린다. 푸른 양(을미년)에는 궁중의 일을 환관이 주가 되고 과부가 함께하니 삼경 촛불 아래에 옥새가 아직 가질 않는다. (징비록)[37]

c. 을미년에는 궁중의 일을 환관이 주가 되고 삼경 촛불 아래에 옥새가 오고 간다. (운기귀책)[38]

d. 을미년에는 궁중의 일을 환관이 주가 되며 과부가 함께 하고 삼경 촛불 아래에 옥새가 오고 간다. (남사고비결)[39]

네 구절을 살펴보면, 징비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헌에는 모두 궁중의 일에 대한 구절이 을미년의 일로 서술하는 반면 징비보장은 이를 갑자년의 일로 적었다. 징비보장에서 갑자년의 일 이전에는 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인, 신묘년의 상황이 서술되었는데, 이 구절에 이르러 간지가 일부 엉키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징비보장의 필사과정에서 필사자가 일부 구절을 누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징비록에는 신묘년 이후 빠진 간지인 임진년, 계사년에 대한 구절이 있는 것은 이 추정을 강화한다. 따라서, 징비보장의 서술 역시 갑자년이 아닌 을미년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다만 필사 과정에서의 오류로 이것이 갑자년의 일로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을미년의 일로 추측한다면, 이어서 이 사건이 1895년의 을미사변을 가리키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을미년으로는 1775년, 1835년, 1895년이 존재하는데, 1775년은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이 명확하지 않아 이 시기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1835년의 경우 궁중의 일을 과부가 처리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바로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다. 1834년에 헌종이 즉위한 후 순

37) 김용주,『懲秘錄』, 493. “靑騶 汾水秋風 牛山落照 黑龍 觀八千谷 民泣秋山 黑蛇之年 大雪盈天 靑羊 宮中之事 宦官主焉 孀妣與焉 三更燭下 玉璽未往.”

38) 김용주,『運奇龜策』, 497. “乙未 宮中之事 宦官主之 三更燭下 玉璽來往.”

39) 김용주,『鑑訣』,「南師古秘訣」, 580. “乙未 宮中之事 宦官主焉 孀妣與焉 三更燭下 玉璽往來.”

원왕후의 수렴청정이 일정 기간 존재했는데, 징비보장과 같은 비결문헌에는 대체로 수렴청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묘사가 곳곳에서 등장한다. 일례로 징비보장의 순자결형 서사에는 "금색 닭(기유년)에 여자 군주가 용립하니 위태롭도다"[40]와 같은 구절이 나와 수렴청정이나 여성 군주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징비보장의 을미년에 대한 서술 역시 1835년의 수렴청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나온 것일 수 있다. 다만, 후술할 논점이 되는 구절들이 남사고비결형 서사에 포함되는 구절들인데, 만약 그 구절들을 해석해서 징비보장의 필사 시기를 1890년대 이후로 고려한다면 을미년의 사건을 1895년의 을미사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구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汾水秋風 牛山落照"라는 구절 역시 작성된 시기를 일부 반영하는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이 나오는 출전을 통해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분수의 추풍과 우산의 낙조를 둘 다 언급하는 경우는 판소리 단가 중 "백발가"와 "편시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둘은 모두 "우산의 지는 해는 제 경공의 눈물이며, 분수의 추풍곡은 한 무제의 설움이라"나 혹은 이와 유사한 구절이 등장한다.[41]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 두 판소리 단가가 사람들에게 불리던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 구절 역시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白首君王"에 대한 이해

1896년 4월 19일 한성신보에서 한 기사를 실었는데, 이 기사가 파문이 되는 일이 있었다. 징비보장에도 이 기사의 표현 일부와 동일한 구절이 나와 이를 통해 징비보장의 필사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데, 우선 징비보장과 한성신보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

40) 『徵秘寶藏』 26. "金鷄 女主御龍臨 殆哉."

41) 정양 외 공저, 『판소리단가』 (서울: 민속원, 2003), 110-116, 237-245.

하얀 개(경술년)와 하얀 뱀(신해년)에는 검은 용이 바다에 떠, 삼군이 눈물을 흘리고, 검은 아이가 성에 외로이 있고, 군왕의 머리가 하얗게 센다. (징비보장)[42]

일이낫다 일이낫다 니씨가즁에일이낫다 삼각산하너른대궐 사시장츈노잣더니 오영문을혁파ᄒᆞ고 육됴를 ᄭᅵ터리니 칠산ᄇᆞ다비쩌쑤는 팔쟝ᄉᆞ실어다가 구듕궁궐 위틱ᄒᆞ니 십아문은 견딜소냐 빅슈군왕삼겻스니 쳔명인듯보존ᄒᆞᆯ가 (한성신보)[43]

한성신보의 기사는 조선 왕실인 이씨가문에 일이 났다며, 대궐에서 놀다가 1881년 오영군문을 개혁, 폐지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궁궐이 위태로우니 조정이 버틸 수 없으며, 백수군왕을 섬겼으니 왕조가 천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곧 당대의 왕인 고종을 비꼬는 기사였다. 한성신보에서는 이 기사가 고종을 비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사람들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로 인해 한성신보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져 400명 이상이었던 구독자 수가 100명으로 줄어들고, 조정에서는 인가 취소를 고려하고, 조선인의 구독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다.[44] 여기에 나온 기사 중 "백수군왕"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한성신보의 기사 이후 수년이 지난 후에도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 告發人 李敏元 探情人 成樂春 所供을 據ᄒᆞ야 公州押上十三人 等을 次第訊査ᄒᆞ온바 盧秉斗段은 托工周易ᄒᆞ고 妄說時局ᄒᆞ야 匪辭惑衆 而至於假政三年과 白首君王鷄龍預號之說은 專事抵賴ᄒᆞ오며 … (사법품보)[45]

b. 만고역적 윤택영이 임군의 옥쇄뺏아 부원군 명색되고 일본통감 갓다주고 … 한갑이 언제든지 세월없이 다지내니 진갑이 무엇인가 백수군왕 가련하다 (한양오백년가)[46]

---

42)『徵秘寶藏』23. "白狗白豕 黑龍浮海 三軍下淚 黑子孤城 白首君王."

43)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한성신보』1 (서울: 소명출판, 2014), 435.

44) 채백,「한성신보(漢城新報)의 창간과 운용에 관한 연구」,『언론정보연구』27 (1990): 122-123.

45) 신용하,『司法稟報』16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474.

a의 보고서는 판결보고서의 모음집인 사법품보에 실린 것으로, 1899년 6월 2일의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대체적인 내용은 노병두 등의 무리가 유언비어를 살포했다는 것인데, 이 중 가짜 정치 3년과 백수군왕에 대한 서술을 주목할 만하다. 앞의 가짜 정치는 1899년에 광무 연호를 사용하고서 3년이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 등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백수군왕에 대한 언급 역시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고종에 대한 비난으로 짐작할 수 있다.

b의 가사는 1913년에 사공수가 지은 한양오백년가의 가사 중 일부로,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제국의 망국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b의 군왕은 고종 외의 순종일 가능성이 있으나 어느 쪽이건 백수군왕이라는 표현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군왕의 머리가 하얗게 센다"는 징비보장의 표현은 1896년의 기사 이후에 작성된 것일 수 있으며, 구절로 나온 시기가 경술년임을 고려하면 이는 경술국치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백수군왕이라는 표현은 1896년 이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대한으로는 1910년 이후 만들어진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4. "道光隆凞"의 해석 문제

징비보장에서 남사고비결형의 서사가 나타나는 중, 남사고비결과 달리 내용 중간에 "道光隆凞"라는 구절을 삽입하는 부분이 있다.

> a. 병신, 정유년에는 왕손이 등극하여 화란을 평정하고, 흉년에 사람들이 죽고, 병화가 끊이질 않는다. (남사고비결)[47]

> b. 적원(병신년) 5월에 금어가 출몰하고, 왕손이 등극하여 화란을 평정한다. 적

46) 서종문, 「한양오백년가와 임진록의 관계와 그 의미」, 『관악어문연구』 4 (1979): 121.
47) 김용주, 「南師古秘訣」, 426. "丙申丁酉 王孫立極 削平禍乱 凶荒殺命 兵燹不息."

계(정유년)에는 도의 빛이 높게 빛나지만, 흉년에 사람들이 죽고, 병화가 끊이질 않는다. (징비보장)[48]

5월에 금어가 출몰한다는 것은 남사고비결에서는 앞서 을미년의 일에서 등장한다. 이를 고려하면 남사고비결과 아예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道光隆熙"라는 구절로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은 해석에 난해함이 따른다. 우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도의 빛이 높게 빛난다"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해석하면 뒤의 구절과 연결할 때 모순적인 문장이 된다. 도의 빛이 높게 빛나지만, 흉년과 병화라는 재앙이 닥치는 상황으로 이를 해석하게 되는데, 앞서 말한 긍정적인 상황이 뒤의 부정적 상황과 대치되기 때문이다. 이는 징비보장에서 남사고비결형 서사를 추가하는 중 고의로 모순적인 구절을 배치해서 상황을 비꼬는 것일 수 있으나, 동시에 달리 해석할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다른 방식으로 보자면, 이 구절은 시대에 대한 표현일 수 있다. 상술한 백수군왕과 같은 구절을 고려하면 이 글의 전사 시기인 함풍 8년을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징비보장의 최초 저본이 함풍 8년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도광은 함풍 이전의 연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때의 정유년은 1837년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광 정유년에는 높게 빛나나"로 해석하게 되어 여전히 해석에 모순점이 남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도광과 융희를 모두 시대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해서, 도광과 융희를 각각 연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경우 융희는 일제강점기 이전의 마지막 연호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문장은 "도광, 융희의 정유년에는 흉년으로 사람들이 죽고, 병화가 끊이질 않는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징비보장의 작성 시기는 융희 연호를 사용한 1907년 이후에 서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해석할 경우 융희 시기에는 정유년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유년은 융희 이전의 연호인 광무 시기의 1897년에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남는다. 따라서 이 구절의 경우

48)『徵秘寶藏』23. "赤猿 五月金魚出沒 王孫立極 削平禍亂 赤鷄 道光隆熙 凶荒殺命 兵火不息."

어떤 경우로 해석하건 모순이 되는 부분이 남는다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4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쟁점과 그 밖의 쟁점들을 검토했다. 이 연구에서의 쟁점에 대한 검토는 징비보장의 내용 중 남사고비결형 서사에 집중해서 검토했으며, 다른 비결 서사들에 존재하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 나온 쟁점들에 대해서 보면, 단양과 영춘의 지명을 통해 징비보장의 저술 시기를 추측하는 것은 다른 사례들로 인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궁중의 일에 대한 해석은 기존에는 1895년의 을미사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존재했는데, 이는 1835년을 가리킬 수 있으며 다른 구절들을 바탕으로 이해한다면 1895년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백수군왕, 도광융희와 같은 구절을 검토하면 징비보장의 작성 시기는 1890년대 이후, 최대로는 1910년 이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에, 책의 마지막에 제시된 간기인 함풍 8년(1858)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결의 끝에 실린 간기는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이뤄진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던 예언임을 강조하는 방편일 수 있으며, 혹은 원래 1858년에 작성된 징비보장의 저본 말미에 간기가 있었는데, 이를 후대에 첨삭한 이후 간기를 그대로 단 것일 수 있다.

V. 결론

이상으로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徵秘寶藏』(한古朝19-110)를 검토했다. 징비보장에 대해 서지사항과 내용, 다른 이본과의 비교, 쟁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징비보장은 1944년 10월에 마츠모토 키이치(松本貴一)가 다른 책들과 함께 총독부에 납입한 도서로, 동일한 제목의 도서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는 유일본이다. 총 30쪽으로 구성된 이 비결은 본문 29쪽과 간기 1쪽으로 구성되어 있

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징비보장은 다섯 종류의 비결 계통이 혼재하는 비결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야나기타본 정감록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야나기타본 정감록 중간에 구산론계 비결이 축약되어 삽입되었고, 야나기타본 정감록 뒤에는 경험방형, 남사고비결형, 순자결형 서사가 차례대로 추가되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징비보장과 대체로 유사한 김용주의 징비록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충청권과 특히 충주를 십승지나 피장처로 강조했으며, 징비보장에는 주석으로 보이는 내용이 본문 속에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징비보장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구절들을 고려하면, 징비보장의 작성 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징비보장은 1896년 논란이 된 백수군왕과 같은 구절이 존재하며, 그 밖에도 해석에 난해함이 따르는 융희와 같은 구절이 존재한다. 따라서 징비보장은 1896년이나 그 이후, 최대한으로는 1910년 이후에 작성된 비결일 수 있으며, 책의 끝에 존재하는 간기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징비보장은 1890년대 이후나 1910년 이후 작성된 비결문헌으로, 여러 비결이 혼합되며 만들어진 필사본이다. 감결과 같이 대화 형식을 유지하는 비결 등에 비교해서 봤을 때 징비보장은 다른 계통의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기 여러 시기와 장소에서 만들어졌을 비결들이 한 비결 안에 섞이는 과정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 밖에 이본과 비교해서 볼 때 이본 등의 비결과 다른 장소인 충청권 및 충주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는 등, 특정 장소가 강조되는 특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연구를 통해 근대에 작성된 필사본 비결문헌, 징비보장에 대해 분석했다. 향후 징비보장과 같이 혼합형 비결에 대해 분석할 때 이 연구의 방법론을 보다 발전시켜 조선 후기에 비결들이 혼합되어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징비보장(徵秘寶藏), 징비록(懲秘錄), 정감록(鄭鑑錄), 필사본 비결문헌, 예언

투 고 일: 2021. 12. 06.
심사종료일: 2021. 12. 23.
게재확정일: 2021. 12. 27.

참고문헌

『徵秘寶藏』(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19-110)

『明月順字訣』(도쿄대학교 오구라문고 소장, 청구기호 L174699, http://kostma.korea.ac.kr/dir/viewIf?uci=RIKS+CRMA+KSM-WD.0000.0000-20150331.OGURA_149)

『諸家秘說』(버클리대학교 아사미문고 소장, 청구기호 33.5)

신용하.『司法稟報』16.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안춘근.『鄭鑑錄集成』.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1.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眞本鄭堪錄』. 서울: 이문당, 1923.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한성신보』1. 서울: 소명출판, 2014.

김신회.「조선후기 정감록 예언의 역사적 변천: 기억에서 기록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0.

김탁.『조선의 예언사상(上)』. 서울: 북코리아, 2016.

_____.『조선의 예언사상(下)』. 서울: 북코리아, 2016.

남혜원.「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의『정감록』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

박해선.「식민지 조선과 정감록」.『일본근대학연구』59 (2018): 293-310.

백승종.『한국의 예언문화사』. 서울: 푸른역사, 2006.

서종문.「한양오백년가와 임진록의 관계와 그 의미」.『관악어문연구』4(1979): 109-131.

장지연.「규장각 소장『秘訣輯錄』(奎 7568) 수록「三韓山林秘記」분석」.『인문과학논문집』50 (2013): 131-148.

정양, 최동현, 임명진 공저.『판소리단가』. 서울: 민속원, 2003.

채백.「한성신보(漢城新報)의 창간과 운용에 관한 연구」.『언론정보연구』27 (1990): 109-129.

최종성.「정감록 백년왕국론과 조선후기 위기설」.『역사민속학』61 (2021): 7-35.

_____.「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郞) 본『진본 정감록(眞本鄭堪錄)』의 검토」.『아시아종교연구원 학술회의』(2021 후반기): 91-105.

황선명.「십승지 고(考)」.『종교와 문화』5 (1999): 157-171.

한승훈.「전근대 한국의 메시아니즘」.『종교와 문화』27 (2014): 27-55.

_____.「開闢과 改闢: 조선후기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의 18세기적 기원」.『종교와 문화』34 (2018): 203-243.

_____.「최초의 정감록 영역본, 그리고 한국 예언서 연구의 난제들」.『한국문화』84 (2018): 433-453.

_____.「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Abstract

The Analysis of Prophetic Manuscript Jingbibojang

Han, Soobin (Seoul National Univ.)

This paper deals with prophetic manuscript, Jingbibojang (徵秘寶藏). Jingbibojang (徵秘寶藏) is a prophetic book, which is similar, in kind, with the Jeonggamnok (鄭鑑錄), written after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paper identified the bibliography of Jingbibojang, then classified the narrative composition of the book, compared with another version, and dealt with issues related to the written period. There is only one edition of this book, which is currently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is book was bought to the Librar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y Kiichi Matsumoto (松本貴一). In terms of narrative composition, this book consists of five prophetic books. When compared to Jingbirok (懲秘錄), which is different version of this book, Jingbibojang (徵秘寶藏) features different contents. One is that Jingbibojang has positive views of Chungcheong area and Chungju as hideout. Secondly, it includes some contents, which can be viewed as annotations of the main text. Considering some prominent phrases, such as “king’s hair turns white” (白首君王), the written period of Jingbibojang can be assumed after the 1890s or after the 1910s.

Key Words: Jingbibojang (徵秘寶藏), Jingbirok (懲秘錄), Jeonggamnok (鄭鑑錄), prophetic manuscript, prophecy